

27년 현장 노하우 담았다... 습기·부식 잡은 제습컨테이너

혁신기업 돋보기

신조로지텍 권 순 욱 대표

광양만에 年17만개 생산공장 추진
올가을 착공해 2028년 완공 전망
100억 투입 신제품 5월 말 실증
고강판·분체도료·스틸바닥 적용
500kg 가볍고 수명 25년 기대
權 “남들이 못하는 물류 추구”

부산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물류 혁신 강소기업 신조로지텍이 중국산 컨테이너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습컨테이너 개발을 끝내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올해 가을 전남 광양만에 연간 17만개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본격 착공, 완공 예정인 2028년 상반기께면 'Made in Korea'의 제습컨테이너를 국내외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순욱 신조로지텍 대표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컨테이너는 완벽하지 않다. 특히 바닷물 때문에 부식에 약할 수밖에 없다. 기존엔 부식을 막기 위해 포장으로 해결해야 했다. 포장으로 생기는



권순욱 신조로지텍 대표가 부산에 있는 본사에서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폐기물이 많고 친환경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습컨테이너를 개발했다. 5월 말 실증테스트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제습컨테이너 개발에만 100억원 가량의 투자비를 쏟아부었다.

신조로지텍이 개발한 제습컨테이너는 고강판을 써 두께는 기존 제품보다 얇지만 중량이 500kg 정도 가볍다. 페인트는 부식에 강한 분체도료를 썼다. 이로

인해 성능이 30% 가량 향상됐다. 바닥도 나무바닥이 아닌 스틸로 했다.

권 대표는 “기존 컨테이너의 수명은 15년 정도다. 1개 가격이 3000달러다. 우리가 개발한 제습컨테이너는 대당 4000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25년을 쓸 수 있다. 더욱 경제적인데다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제습컨테이너 공장 신축을 위해 광양에 9만 2000평의 땅도 이미 확보해놨다.

물류회사가 컨테이너를 직접 만들기 위해 제조업에도 본격 뛰어들었다.

신조로지텍은 권 대표가 1998년 당시 신조해운으로 설립, 출발한 종합 물류기업이다. 회사는 지난해 44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우리는 남들이 못하는 물류를 추구한다. 큰 물건을 나르는 것을 가장 잘 하는 회사라고 자부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신조로지텍의 물류 신조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물류전문가는 토털 엔지니어다. 포워딩을 하는 포워더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워딩(forwarding)이란 국제 물류에서 물건을 보내는 화주를 위해 보관,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것을 말

한다.

‘원스톱 통합 물류 솔루션’을 통해 해상운송,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조로지텍은 그중에서도 프로젝트 플랜트, 초중량 화물 등 특수 화물 운송에 특화돼 있다.

“공장을 해체하는 도면을 지구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물류회사일 것이다. 비용을 줄이기위해선 화물을 옮기는 배의 구조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포워더 중에선 배에 정통한 전문가가 많지 않는데 우리가 바로 그 전문가다. 여기에 포장, 하역, 내륙 운송 등 다양한 이해와 지식은 필수다.”

신조로지텍이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국제해운합실함로(ITER) 프로젝트에서 국내 굴지의 회사를 제치고 공식 물류업체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신조로지텍은 HD현대중공업이 제작한 600톤 무게의 초정밀 핵융합 장비를 한국 울산 미포항에서 프랑스 남부 카다루슈로 성공적으로 운송하며 세계적 수준의 특수 화물 운반 역량을 입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최적의 적재 능력을 바탕으로 화주들 비용 절감과 회사 수익 추가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곳곳에서 잡고 있

다. 중국에서 브라질로 운송하는데 8만 달러가 드는 라이프보트를 4만 달러에 나르면서 화주에게는 7만 달러를 청구해 결국 양쪽이 윈윈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 대표는 “한 회사의 2.65m 규모 대형 드릴을 용접 부분을 분리해 2.5m로 만들어 운송했다니 1만5000달러였던 비용을 4000달러로 줄여 화주에게 큰 기여를 했다”면서 “우리는 해상, 운송, 통관, 관세환급, 하역, 포장, 보험, 무역, 외환 실무 등에 모두 특화돼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활짝 웃었다.

‘경영혁신(메인비즈)’ 인증기업으로 신조로지텍은 컨테이너 적재 최적화 프로그램인 ‘1BOX.Click’도 개발 막바지다. 이는 27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컨테이너 적입(CLP) 노하우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현장 제약 조건과 항로별 운임 비용을 동시에 반영해 최적의 적재 배치와 컨테이너 조합을 자동으로 산출한다. 아울러 실시간 화물 위치 공유 시스템, 클라우드·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문서 관리(e-BL) 등 디지털 물류 고도화에 앞장서는 등 끊임없이 혁신에 도전하고 있다. /부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노비즈협회, K-방산 스타트업 15곳 육성 시동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사업 수도권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 12월까지 유망 방산기업 발굴

이노비즈협회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진하는 ‘2026년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육성사업’의 수도권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5월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방산 분야 경험이 없는 초기 창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방위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과제 기획 ▲방산 교육 ▲선행 연구개발(R&D) ▲멘토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올해 12월까지 총 15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수도권 내 유망 방산 스타트업 15개사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ICT 및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민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아이템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검증, 사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방산업 진입을 가속화하고 방산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협회가 보유한 이노비즈기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기술력이 검증된 중소기업 중심의 자생적인 방산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참여 기업은 향후 2단계(2027년, 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와 3단계(2028년, 기업당 최대 21억원 지원)로 이어지는 중장기 연구개발(R&D)에도 참여할 수 있어,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되는 ‘성장 사다리’ 지원을 받게 된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수도권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 투자 인프라가 집중된 핵심 지역”이라며 “민간 중심의 실행력 있는 밀착 지원을 통해 방산 스타트업의 신속한 사업화와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산 진출을 돕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방위사업청 및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와 함께 ‘K-방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방산 분야 교육·컨설팅, 수출 지원, 기술사업화 등 실무형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전체 방산혁신 기업의 66%를 차지하는 이노비즈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꾸준히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공고는 5월 초 이노비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ESG 평가서 상위권 입증 ‘S&P 지속가능성 연감’ 멤버 선정

코웨이가 13년 연속으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DJ BIC)’ 아시아퍼시픽 지수에 편입됐고 ‘2026 S&P 지속가능성 연감(Sustainability Yearbook)’ 멤버로도 선정됐다. 5월 코웨이에 따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은 매년 실시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를 통해 전 세계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전 세계 59개 산업군, 9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이중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인 848개 기업이 연감 멤버로 등재됐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LX Z:IN 플래그십’ 오픈

강남 논현동에 510평 전시장 조성
브랜드 철학·디자인·기술력 체험

LX하우시스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회사의 대표 전시장인 ‘LX Z:IN 플래그십’을 오픈했다.

5월 LX하우시스에 따르면 ‘LX Z:IN 플래그십’은 연면적 1690㎡(약 510평) 규모의 총 3개층으로 구성됐으며 ‘자재를 넘어 공간과 삶을 직조하는 LX Z:IN’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LX Z:IN 브랜드만의 철학, 디자인, 기술력과 제품을 종합적으로 경험하고 바로 제품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전시 매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LX Z:IN 브랜드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1층 공간을 시작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 솔루션을 제안받는 3층 공간, 솔루션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자재를 탐색하고 구매하는 2층 공간으로 이어지는 여정의 동선으로 구성했다.

1층에는 과거와 현재의 인테리어 자재를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인사이트 스튜디오’ 공간이 운영된다. ‘하이 샷시’ 창호와 ‘깔끄미’ 바닥재 등으로 구성된 당시 국민 제품으로 구성된 과거공간, ‘뉴프레임’ 창호와 ‘에디톤’ 바닥재, ‘디아밍’ 벽지로 구성된 현재공간을 비교 체험해보면서 오랜 시간 국내 인테리어 시장을 선도해 온 LX하우시스만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교원투어, 푸꾸옥 가족여행 수요 공략

5성급·체험형 패키지 등 선보

베트남 푸꾸옥의 인기로 교원투어가 관련 상품을 내놨다. 푸꾸옥은 5성급 리조트와 풀빌라 등 신규 숙박 인프라 확충과 함께 체험형 콘텐츠가 확대되면서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원투어 여행자가 최근 3년간 5월 가정의 달 예약 데이터를 분석해 5월 내 놓은 결과 베트남 전체 예약에서 푸꾸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4.7% ▲2025년 25.1% ▲2026년 29.8%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항 노선 확대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린다.

교원투어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푸꾸옥 풀빌라 패키지 기획전 이미지.

여행 수요를 겨냥한 ‘푸꾸옥 풀빌라 노 옵션 패키지’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 상품은 신규 취향한 썬 푸꾸옥항공의 인천~푸꾸옥 노선을 이용하며 세라톤 푸꾸옥 롱비치 리조트와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소나씨 푸꾸옥 등 5성급 리조트에 숙박한다. /김승호 기자

토요타코리아

올 뉴 RAV4 내달 출시 PHEV GR 스포츠 트림 추가

토요타코리아가 다음달 16일 ‘올 뉴 RAV4’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전국 전 시장에서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 5월 토요타코리아에 따르면 올 뉴 RAV4는 4개 트림으로 라인업을 확대했다. 주행 성능을 강조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GR 스포츠’를 새롭게 추가해 하이브리드 2개 트림으로 구성된다. 올 뉴 RAV4 PHEV는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와 고효율 충전 대응 기능을 갖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E-V 모드 주행거리와 출력 성능을 향상시켰다.

/양성문 기자 ysw@